남가주 동신교회

가 정 예 배 지

2026년 11월 둘째주

도입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먼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Nor any ill forebodes.
But at the cross of Calv'ry sings, "Praise God for lifted loads!"

2. The pass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are turned to prayers, The burdens slip away.

3. He tells me of my Father's love, And never slumb'ring eye;
My everlasting King above Will all my needs supply.

4. When to the throne of grace I flee, I find the promise true;
The mighty arms upholding me Will bear my burdens too.

(Chorus)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본문 요한복음 4장 48-50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John 4:48-50

48 "Unless you people se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49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50 Jesus replied,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설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한 왕의 신하가 죽어 가는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지위와 재산으로도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함께 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요 4:50).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순서가 반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어떻게 될지 보여 주시면 믿겠습니다." 성적과 친구 관계, 가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같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을 통해 믿었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가며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순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순간, 간절함 가운데 받은 은혜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의 시간들을 기억하는것은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그런 순간을 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 주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설교

It is easy to say we trust God when everything is going well. But what happens when we pray and cannot see an answer? In John 4:47, a royal official comes to Jesus because his son is dying. His position and wealth cannot solve his most desperate problem. His desperation leads him to Jesus. Sometimes suffering helps us recognize our limitations and seek Jesus more earnestly. The official begs Jesus to come home with him. But Jesus responds differently than he expects: “Go; your son will live” (John 4:50). Jesus gives him a promise before giving him visible proof. Now he must decide whether to trust Jesus’ word and act on it. Scripture tells us that he believes what Jesus says and goes. His faith becomes visible through his obedience as he takes a step based on Jesus’ word. We often wish the order were reversed. “God, show me what will happen first, and then I will believe.” We want clear answers about our grades, friendships, family, and future. But faith means trusting and obeying Jesus even when we cannot see the outcome. This passage does not promise that every prayer will be answered the way we want. Instead, it invites us to trust Jesus because of who He is. On his way home, the official learns that his son recovered at the very moment Jesus spoke. He and his entire household believe in Jesus. The Samaritans in this passage also initially believe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but later believe because they hear Jesus for themselves. Our faith, too, must become our own. Our parents and teachers can lead us to Jesus, but each of us must come to know and trust Him personally. As we live by faith, we need to remember what God has already shown us: the moments we encountered Him, the prayers He answered, the grace we received in our desperation, and the times our hearts were moved in worship. Remembering these moments strengthens our faith. If we have not experienced such moments, we need to earnestly ask God to help us encounter Him personally. Our strongest foundation for trusting Jesus is His cross and resurrection. He demonstrated His love by giving Himself for us and revealed His power by overcoming death. We may not understand everything He allows, but we can know the Savior who holds us. Where in your life do you need to trust Jesus at His word today? Entrust your fears to Him, listen to His Word, and take a step of obedience.

나눔질문

1. 왕의 신하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한계를 느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경험이 있나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a desperate situation beyond your own control that led you to earnestly seek Jesus, just like the official?

2. 신하의 집안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Like the official's household and the Samaritans, share a moment when you personally met Jesus or experienced a memorable answer to prayer.

3.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오늘 내 안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딛을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Relying on Christ’s love proven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what is one concrete step of obedience you can take today to overcome your fears?

마침기도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온 가족이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rd, help us fully trust Your promises even when results are not yet visible. May our family rely on Your word and boldly take steps of obedience in our daily live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